

	<h1>보도자료</h1>			
	보도	2021.11.22.(월) 14:00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손 성 은(02-2100-2910)	담 당 자	최 상 아 서기관 (02-2100-2911)
	예금보험공사 은행관리부장 유 형 철(02-758-0901)		예금보험공사 은행구조개선팀장 장 은 익(02-758-0910)

제 목 :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결과

1 낙찰자 선정 결과

- 금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(공동위원장: 고승범 금융위원장·이인무 민간위원장, 이하 '공자위')는 「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(안)」 의결을 거쳐 낙찰자 5개사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.
 - 총 매각물량은 9.3%,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 가격은 1만 3천원 초과
 - 이는 공자위가 9.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할 당시에 예정하였던 최대매각물량 10%에 근접한 물량을 당시 주가(10,800원)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매각하는 것입니다.
- 예금보험공사(이하 '예보')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4%가 낙찰되어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 낙찰자는 유진프라이빗 에쿼티(이하 '유진PE') 1개사입니다.
 - 이외에, KTB자산운용(2.3%),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(1%), 두나무(1%),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(1%)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.

<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진행 경과 >

- (매각공고) 9.9일 「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」 발표
- (투자의향서 접수) 10.8일 투자의향서(LOI) 접수 결과 총 18개 투자자, 최대매각물량(10%)의 4.8배~6.3배 수준으로 집계
- (본입찰 접수) 11.18일 본입찰 접수 결과 총 9개 투자자가 입찰제안서 제출
 - 이 중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제안은 총 7개 투자자, 최대매각물량(10%)의 1.73배로 집계
- (낙찰자 선정) 11.22일 공자위 의결을 거쳐 5개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, 총 낙찰물량은 9.3%

2 금번 매각의 의의

1 공적자금 회수로 국민 부담 완화

- 금번 낙찰가격(평균 1만3천원 초·중반대)은 '21.4월 블록세일 주당 가격(10,335원) 및 소위 원금회수주가('21.9.9일 기준 12,056원)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서,
 - 금번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약 8,977억원*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* 매각 완료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.8조원 중 12.3조원 회수(회수율 96.6%)
- 이에 따라, 향후 잔여지분(5.8%)을 10,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.
- 특히,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여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정부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짐으로써,
 -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추가이익(Upside Gain)을 획득하여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2 사실상 완전 민영화 달성

□ 금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, '98년 舊 한일·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게 됩니다.

○ 이에 따라,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매각 종료시 예보의 지분은 5.8%로 축소되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, 우리사주조합, 국민연금*에 이어 3대주주가 됩니다.

* 우리사주조합·국민연금은 대주주이나, 사외이사 추천 권한은 없음

○ 예보-우리금융지주 간 협약서('19.7.25)에 따라 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의 임기만료('22.3월) 이후 상실됩니다.

< 매각 완료시 우리금융지주의 주요주주 및 과점주주 지분 구성 >

주주	예보	국민연금	우리사주조합	과점주주(사외이사 추천권 1개씩 보유)						
				IMM PE	한국투자증권	키움증권	한화생명	푸본생명	유진PE	소계
지분율	5.80	9.42	9.80	5.57	3.77	3.73	3.16	3.97	4.00	24.20

3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유지

□ 금번 매각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추가되었지만, 기존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, 사외이사 5명*, 비상임이사 1명(총 8명)으로 구성되어 있으나,

* 현재 공석인 푸본 추천 사외이사 1석 포함

○ 금번 매각으로 사외이사 1명이 추가(유진PE 추천)되고, 비상임이사 1명이 제외(예보 추천)됩니다.

< 매각 완료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구성 변화 >

현재(21.11월)				→	향후(22.3월 이후)			
사내이사	사외이사	비상임이사	합계		사내이사	사외이사	비상임이사	합계
2명 ¹⁾	5명 ²⁾	1명 ³⁾	8명		2명	6명 ⁴⁾	-	8명

주1) 대표이사(회장), 사내이사(수석부사장)

3) 예보 추천 이사

2) IMM, 한투, 한화, 키움, 푸본(공석)

4) IMM, 한투, 한화, 키움, 푸본, 유진

□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3 향후 일정

1 매각절차 관련

- (매각절차 종결) 예보는 12월 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.
- (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) 예보-우리금융지주 간 협약서(19.7.25)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의 임기만료(22.3월) 이후 상실됩니다.
- (사외이사 추천) 낙찰자 중 1개사(유진PE)가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습니다.
 - 매각이 예정대로 종결될 경우,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1월에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.

2 잔여지분 매각 관련

- 앞으로도 공자위는 향후 추가추이, 매각시점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보 보유 잔여지분을 신속하게 매각 완료할 계획입니다.

※ <첨부> 주요 예상 질의 응답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1. 금번 낙찰자 중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낙찰자가 있는지 ?

- 투자자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금번 낙찰자 중에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낙찰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
- 현행 관련 법령상 누구나(비금융주력자 포함) 4%까지는 금융지주 회사 주식을 금융위 승인 없이 보유 가능

2. 4% 미만의 소수지분만 낙찰된 투자자도 경영참여 가능성이 있는지 ?

- 이번 매각 과정에서 4% 이상 투자자에 한해서만 사외이사 추천 권을 부여기로 결정
- 4% 미만의 소수지분 낙찰자는 상법상 주주제안권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한 것 이외에 이번 매각을 통해 별도로 부여되는 권한은 없음

3. 낙찰자의 낙찰포기에 대비하여 예비 낙찰자도 선정하였는지 ?

- 입찰자 평가 순위에 따라 차순위 낙찰 예정자가 결정되어 있으며, 낙찰 포기 물량 발생시 차순위 낙찰 예정자 순서대로 매각 물량을 재배정 할 수 있음(공자위 의결사항)
- 다만, 차순위 낙찰예정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음